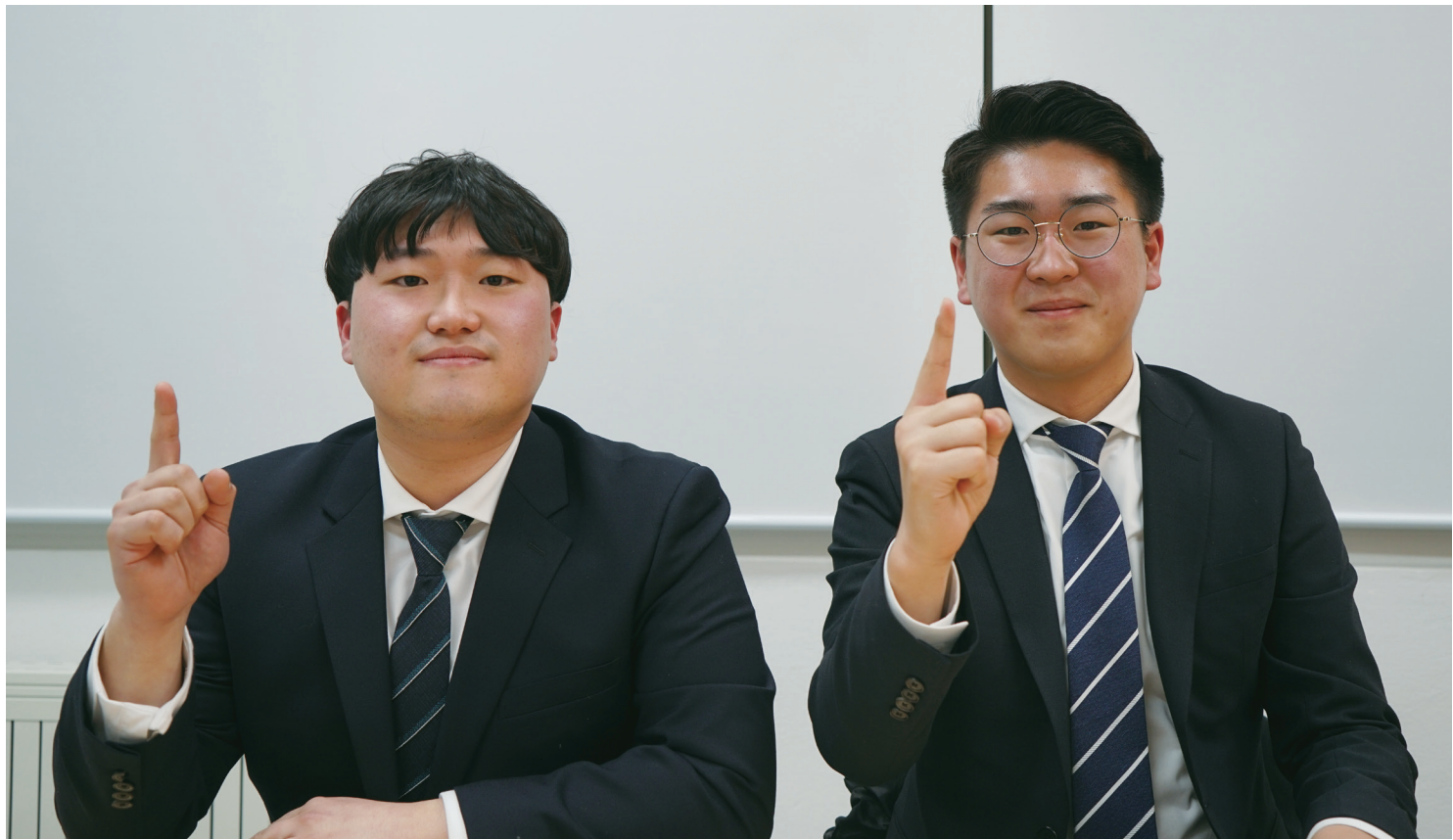


6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인터뷰



제 53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기호 1번 쿠키 선본 남우석(철학 2018·오른쪽) 정후보와 백가림(사학 2018·왼쪽) 부후보

(사진=김창호 기자, 이현정 기자)

〈기호 1번 쿠키 선본〉 “학교를 학생 손에 경희를 바꿀 열쇠”

김창호 기자 kc_hxxx@khu.ac.kr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경희의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갈 학생총투표. 우리 신문은 서울캠퍼스의 새로운 한 해를 책임질 총학생회(총학) 후보 〈기호 1번〉을 만나 그들이 가진 생각을 들어보았다.

Q.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A. 정후보와 부후보 모두 2020년 문과대 학생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학생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서로가 동의했고, 침체된 학생사회에서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같았다. 학생자치단체의 개선점과 생각을 공유하며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정후보와 부후보 둘이서만 바꾸는 것이 아닌, 믿고 따라주시는 모든 학우와 함께 경희의 닫힌 문을 열어보자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Q. KHU:KEY 선본을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이유와 타 선본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있다면?

A. ‘제대로 듣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본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최대한 모두의 의견을 보장하려 노력했다. 정책을

구상할 때는 선본원 모두가 발로 뛰며 공론장에서 대화를 나눴다. 대표자들만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소통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선본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상대 선본을 뽑으면 단순히 학생대표자가 바뀌겠지만, 우리 선본을 뽑으면 학교 자체가 바뀌리라 자부한다. 그만큼 학교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Q. 핵심 공약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지?

A. 첫 번째는 ‘온라인 안전 상정제’ 공약이다. 중운위 위원들도 건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학생회 회의체 안전은 주로 총학생회장단이 상정했다. 이런 모습이 일반 학우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단순히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을 넘어 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정 수 이상 동이가 모아지면 논의안건으로 상정해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두 번째는 ‘총여학생회 존폐 및 재편에 관한 공론장 형성’ 공약이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대표자의 부재로 인해 존폐나 재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소 예민한 문제지만 민주적 공론장이

마련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 정례화’ 공약이다. 등책위는 등록금 책정 문제만 다루는 자리가 아닌, 학교와 학생 간 학자 요구안을 약속할 수 있는 회의체다. 이와 비슷한 회의체로는 상대 선본이 주장하는 소통간담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 회의체다. 때문에 강제력을 지니는 등책위 정례화를 공약으로 구상했다.

이외에도 학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공약, 권리 증진을 위한 공약 등을 다양하다. 총여학생회 ‘G2’ 선본과도 공동공약 제시를 통해 유학생 처우 개선과 권리 대변에 힘을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 문화교류주관에서 교류의 장을 형성할 것이다.

Q. 학생자치의 위기를 강조했다.

A. 학생자치의 위기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에서야 수면위로 떠오른 것일 뿐이다. 이전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학생이 설 자리는 많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총학생회의 역량 하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총학이 학교 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학교는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다. 하지만 총학은 공약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1년마다 변경된다. 학생회도 하나의 기구로서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체계화가 부재하다. 따라서 학생회가 학생들의 말을 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약속을 넘어

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조고 KHU:KEY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Q.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학교를 학생의 손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현재 학교와 학생사회가 겪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며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 선본의 공약에 비해 인기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수강신청 제도 개선, 기숙사 관련 공약 등 피부에 와 닿는 공약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좀 더 내실이 단단한 총학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세우려 노력했다. 또 학사 운영 결정에 있어 학생 대표와 일반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다.

Q. 공약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A.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전부 이행 가능하다. 공약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모두 따져보았다. 우리 선본의 장점 중 하나가 2~30명에 달하는 정책팀원이 다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공약은 과감히 포기했다. 지금 남아있는 공약도 처음보다 1/3가량 줄인 것이다. 그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에 논의를 마친 공약이 많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히 확신 드릴 수 있다.

Q. 총학생회 후보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A. 총학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학은 코로나19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 역량 또한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초기 여러 학생 대표자들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대표자라면 2학기부터는 똑같은 핑계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됐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학생자치에 참여할 ‘맛’, 정치적 효능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학생들과 소통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회가 역량을 키우는 것,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이 학생자치에 참여할 ‘맛’이 나는 학생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자치에 참여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는 효능감을 주는 것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는 대응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Q.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지?

A.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대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공지,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현안이다. 총학과 학교 양측의 논의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중요한 공지나 결정사항은 중앙에서 결정되고 나서야 전해 내려왔다. 또 각 단위마다 존재하는 여러 특수 집단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논의도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별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공약으로 구상했다. 정기적으로 단위별 학생 대표와 실무진, 교수진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Q. KHU:KEY 선본을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A. 마스터키. 닫힌 경희의 문을 모두 여는 마스터키가 될 것이다

Q.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A. 학우분들이 함께 해주지지 않으면, 저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우들이 함께하지 않는 총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 스스로 함께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의 마음에 속 드는 총학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며 준비했습니다. 같이 동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